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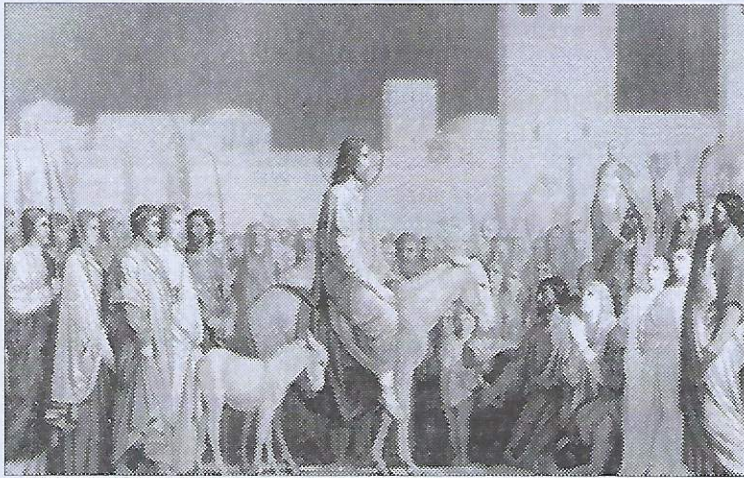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주일

제35권 18호(나혜) 2015년 3월29일

[묵상]



선과 악의 양면성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선과 악의 양면성을 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들어 높였던 군중,
환영하였던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환호하는 나뭇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내려치는 채찍으로 변하였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우리,
주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를 영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 우리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증오하는 생각까지도 버리고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성지 가지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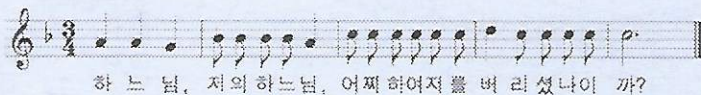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생)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복음 마르코(Mark) 14,1-15,47<또는 15,1-39>

영성제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행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1) 공동체의 선익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을 완수하고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그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도록 “질서 있게” (1코린 14,40) 사용되어,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만일 누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공동 선을 해친다면, 그가 은사라고 주장하는 현상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랑

은사 식별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은총으로서,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로마 5,5).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부어 주신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 식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1서 12장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이렇게 강조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코린 13,2).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은사들의 참된 척도인 사랑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만일 어느 누가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은사 현상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계속>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1	149	주님께서...
봉헌	409	265	259
성체	주품에	279	285
파견	401	152	150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며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미국의 한 수사(修士)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홍남 철수에서 수많은 피란민의 목숨을 구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이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1954년 미국의 성 베네딕도 수도원에 들어가 마리너스란 수도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1950년 12월 홍남에서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철수 중이었습니다. 이때 라루 선장은 선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본래 승무원 5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에 1만 4000여 명의 피란민을 태워 포화와 기뢰를 뚫고 죽음을 각오한 항해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거제도에도착했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으며, 오히려 5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는 “저는 가끔 그 작은 배에 태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날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느님께서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믿습니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수난을 앞두고 공포와 변명에 휩싸여 괴로워하십니다. 하느님께 죽음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당신의 죽음을 피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의 시작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갖가지 부정과 부조리, 고통과 모순, 실패 등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죽음의 삶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을 때, 끊임없이 아집이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세상과 죄와 욕심에 대해 죽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 보고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먼저 가신 죽음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그 희생,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로 올라가는 그 고난에서 부활의 참된 승리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허영엽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꽃, 지다

엄동에 홀로 피어 겨울을 살더니
지난밤, 소리도 없이 매화가 졌습니다.
봄이 올 모양입니다.
곧 천지간에 꽃들이 다투어 피겠습니다.
이렇게 봄을 위해 지는 꽃도 있습니다.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금자 테레사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 사제가 축복한 성지(聖枝)는 내년 재의수요일 전 주일까지 십자가상에 끼워 잘 보관하십시오.

성삼일(목,금,토)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 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 4월2일 오후 8시
(밤 9시30분부터 수난감실 성체 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3일 오후 8시
* 미사는 없으며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절이 있습니다.
*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수난예식에 앞서 오후 3시 :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4월4일 밤 9시
* 배론 청년회에서 부활 초를 판매합니다.(\$2.00)

◆ 부활 대축일 미사(4월5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LA 대교구 성유 축성미사(Chrism Mass)

- 일시 : 3월30일(월) 오후 7시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천사들의 모후 대성당)
555 Temple St.(+ Grand Av.) LA 90012
- 미사 주례 : 호세 고메스 대주교님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 ~ 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소방 대피 훈련

4월 12일 11시 미사 후 소방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 안전하게 참여하며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29일(주일) *PV2반 : 돼지불고기 상추쌈(\$3)
* 주일학교 : 김치찌개 (11,10학년)
- 4월5일(주일) * 부활 대축일 전신자 점심 나눔 :
우거지국 (무료)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2일(성 목요일)/3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하버/카슨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동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P.V.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장미순 금동군 김 은 김상근 김성현 김영덕 김정선 김정순 민성원 박광자 신경훈 신순철 안재만 양영관 오수인 유보나 유영균 윤화경 이경수 이영석 이인석 이재철 이종선 이형삼 이효세 장영진 정남형 정지숙 정혜영 조소영 차정애 최 일 황지영 합계:\$2,955	장미순 금동군 김 은 김영덕 박광자 신경훈 신순철 안재만 양영관 오수인 유영균 윤화경 이경수 이인석 이형삼 이효세 장영진 정남형 정지숙 정혜영 황지영 합계 : \$1,515
주일미사 헌금 : \$2,669 한남체인 : \$270	환불 : \$24.50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24일 (금) - 7월26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환불 불가능**)
- 신청마감: 4월5일까지 등록한 학생들만 참석 가능함.
본당 주최 행사가 아니므로 이후 등록은 불가능함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2015상반기(제28기)한국 학교 교사 연수

- 과정 : 일반 연수 과정
- 장소: 은혜로한국 학교(431 Madrid Ave. Torrance)
- 기간 : 2015.3.26.(목)~4.21.(화) 매주 화, 목
- 시간 : 오후 7:00~9:00
- 참가자 : 한국 학교 교사 및 한국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봉사하실 분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장 ☎(213)700-9399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 기간 : 4월~5월 매주 금요일 (07:00~08:30)
- 신청마감 : 3월 27일

◆백삼위 한국 학교 단어 경시 대회

- 일시 : 4월 5일 (주일)
- 시상식 : 4월 12일(주일) 학생 미사 중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신현화 헬레나 991-4838 3/4(수) 오후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701-6343 3/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3/6(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21(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심재은 클레멘스 991-8558 3/14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코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3/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당 625-3312 3/21(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3/13(금) 오전11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희연 루시아 818-6903 3/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박정희마리아 404-1607 3/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8 (일)오후 6시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십자가의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522-2933 3/14(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십자가의길'로 대체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377-6752 3/10(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세 신자 환영합니다.”

마음대로 가져 가시오

카톨릭 초등학교에 들어간 꼬마가 첫 점심식사를 하러 카페테리아로 갔다.

첫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잔뜩 놓여 있었는데, 수녀님이 붙여놓은 노트가 있었다.

'하나씩만 가져가시오.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테이블로 가니 초코렛 쿠키가 놓여있었고 아무런 노트가 없었다.

꼬마는 재빠르게 노트를 써서 붙였다.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느님은 사과를 보고 계십니다.'

...☺ ☺ ☺ ☺ ☺ ☺ ☺ ☺ ☺ ☺ ☺ ☺ ☺ ☺ ☺ ☺ ...

성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여 지상 생활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합니다.

▶ 파스카 성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로 '주님 만찬 저녁미사'부터 시작하여 '예수 부활 대축일' 제2저녁기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2일(목)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말씀 전례 후에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영성체 후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3일(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금식과 금욕을 지키는 날입니다.

▶ 성토요일: 4월4일(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묵상하며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입니다.

▶ 부활 성야: 4월4일(토)

교회는 가장 장엄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말씀의 이삭]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일치'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외국 여행 중에 주일 미사를 참례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에는 또 다른 '일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일치의 감동'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도 안 통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마치 내 집처럼 들어가 나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가량을 보내고 나오는 그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알렐루야, 아알렐루야아, 알렐엘루우야'를 노래하고 나면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치의 감동'이 만만치 않게 강렬합니다. 이 '일치의 감동'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넘는 그 오래된 기도문을 우리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의 첫 날 목요일의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서 영성체 후에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 때 '입을 열어 구세주의'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라틴어로 '팡제 링구아'(Pange lingua)라고 하며 성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찬미가이므로 약 800년 된 노래입니다. 이 선율을 바탕으로 후대 작곡가들은 여러 아름다운 성가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금요일에 바치는 '주님 수난 예식' 때 사제가 "보라 십자가 나무"라고 선창하는 '에체 리눔 크루치스'(Ecce lignum crucis)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1000년은 넘는 성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은 성가가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일치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오래 전 저 멀리 유럽의 성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14처를 옮길 때마다 노래하는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는 그 가사와 선율이 최소한 700년이 넘는 것입니다. 가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15일) 때 노래하는 성가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이며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초기 고전주의 이탈리아 작곡가인 페르골레치의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로 시작하는 이 부속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가가 성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 세계 곳곳의 많은 신자들이 오래 전부터 그랬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고 비통해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길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 다른 '일치의 감동'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매우 특별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허영한 요셉 / 한국 예술 종합학교 음악원 교수